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11 품다도

명대 새 문인문화 이끈 '오파'의 차문화

명대에는 지금의 중국 절강성 소주지방을 중심으로 이전 시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문인문화가 태동했다. 이를 선도한 문인집단을 가리켜 소주지방의 옛 이름을 따서 '오파(吳派)'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문징명(文徵明, 1470~1559)은 오파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서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스스로도 "일생동안 술은 손대지 않았으나 차만큼은 자주 마셨다"고 말할 정도의 '차 애호가'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그는 산천을 유람하면서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며 다수의 시문과 그림을 제작했고, 틈틈이 차를 품평하거나 차에 대한 글을 정리하면서 그윽한 아취에 젖는 시간이 많았다.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품다도'는 1531년 어느 봄날 문징명과 가까운 벗들이 초당에 모여 차를 품평하는 정경이다. 단정한 초당 안에서는 차를 사이에 두고 문징명과 그의 벗이 마주 앉아 청담(淸談)을 나누고 있다. 별채에 있는 동자가 품평에서 찻물을 끓이며 부채질로 불기운을 조절하고 있는 사이, 초당 밖에서는 한 인물이 석판교를 걷고 있다. 자연에 담긴 듯 고목으로 둘러싸인 초가집과 그 뒤로 절제된 색조와 고고한 형태만을 드러낸 산봉우리가 보인다. 곧게 솟아오르다가 가지 하나를 무심히 늘어뜨린 노송은 분명 산 능선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초옥 옆에 뿌리를 내린 푸른 소나무가 곧게 솟아 집할 것 같지 않던 봉우리와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인 구상을 이뤘다. 이는 노송을 통해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일상생활과 자연이라는 이상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니 그 의도가 참으로 멋스럽다.

窓對水閣)

곡우가 막 지나니 차 마시기 좋은 때(霖雨乍過茶事好) 차 술의 물이 막 끓기 시작하니 멀리서 벗이 찾아오네(鼎湯初沸有朋來).



문징명(文徵明), '품다도(品茶圖)', 지본채색, 88.3x25.2cm, 대북고궁박물관 소장.

시문에서는 차 마시기 좋은 달속의 자연풍경과 함께 차 만들기 좋은 시기로 곡우(양력 4월 말경)가 소개돼 있다. 그런데 이는 그 전시기인 송대에 비해 찾아볼 수 있는 절기가 한달 가량은 늦춰진 것이니 어찌된 일일까. 이러한 변화는 그림 속 다구의 표현에서도 보인다. 인물들 앞에 놓인 다구(茶具)라고는 소박한 다완(茶碗)과 다호(茶壺)뿐인데 송대의 화려한 탕병과 잔탁 세트, 말차 거품을 내던 다선에 비하면 단출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 문인의 소박한 살림살이만을 드러낸 것은 아닐 것이다. 명대에 들어 차를 만들고 마시는 방법이 있어 일대의 전환을 맞이하는데 그림은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391년, 명의 태조 주원장은 농민이 단차(團茶, 말차를 만들기 위해 받는 고통과 폐단을 알고 단차 제조를 금지하는 조서를 내렸다. 이후 단차를 대신해 찻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마시는 산차(散茶, 잎차)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됐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다와 음다법의 변화로 인해 명대는 산차에 맞게 찻잎 따는 시기나 다구의 형태가 바뀌었던 것이다. 차 거품을 낼 필요가 없어진 다완은 입지름이 줄어들고, 찻잎을 우려내야 하는 다호는 송대에 비해 둥글면서 자그마한 형태로 바뀌었다. 문징명은 다구를 통해 이러한 변화상을 소박한 듯 세심하게 표현한 것이다. 문징명의 '품다도'는 명대 들어 더욱 맑아진 차색과 깊어진 차향을 음미하는 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달속을 추구하는 이상과 뜻을 함께 하는 벗이 어우러져 더 깊은 향기를 전한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7 봉암사(鳳巖寺)



1947년 가을, 안타까운 시절 속에서 고뇌하던 몇몇 스님들은 회양산 봉암사에 결방을 풀었다. 부처님 법대로만 살기로 약속을 하고, 안타까운 시절과의 결별을 다짐했다. 훗날 그 뜻 깊은 시간들은 시절을 극복해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의미가 됐다. 또 다시 가을이 찾아오고, 전국의 수좌들이 봉암사를 찾았다. 봉암사결사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가을비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법회가 시작됐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옵니다." 영진 스님이 참회문을 낭독하자 사부대중은 합장으로 참회에 동참했다. 다시 안타까운 시절이 찾아온 걸까. 60년 전의 그 도량엔 1만 명의 사부대중이 비를 맞으며 기억 속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안타까운 시절마다 대중은 모여서 약속을 했고, 다짐을 하며 떠나갔다. 모두가 떠난 봉암사. 마당엔 가을바람만 서성거리고, 담장 너머에선 누군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다.

옛 관화의 세계

이발이 법을 배우다 이발참문(李剃參問)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귀종(歸宗)이, 제자백가의 책을 해박하게 모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별명을 이발(理髮)이라 불렀던 이발과 법가량을 하고 이발이 법을 배우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귀종(歸宗) 화상은 마조의 법을 이었고, 강주의 여산(廬山)에서 살았다. 선사(禪師)의 법명은 지상(智常)이며 성씨는 알 수 없다. 선사(禪師)께서 오랫동안 남전과 도반이었는데 신체가 기묘하고 이상해 보는 이가 모두 의심하기를 왕이 될 상조라 하고 수군거리 결국 목욕을 눈에 쬐어 눈이 붉게 되니, 사람들이 눈 붉은 귀종(歸宗) 화상이라 불렀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종지상 스님을 만나게 되자 이발이 물었다. '수미산이 겨자씨를 받아들이고 겨자씨가 수미산을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깨알이 수미산을 받아들입니까?' 지상 스님이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박사의 학문은 만 권의 책을 열람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자 이발이 말했다. '분수에 넘치게 그런 헛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지상 스님이 말했다. '사람의 키는 아무리 커도 10척의 몸밖에 안 되는데 만 권의 책을 어떻게 그 몸에 붙여 놓을 수

있습니까?' 이발은 머리를 숙이고 말이 없다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좋은 말씀이라 칭찬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덩 빈 총만'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모두를 비운 곳에 모두가 치는 법이라고 했듯이, 모든 존재의 본질인 사라짐을 통해 텅 빈 자체가 될 때, 작은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녹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얼핏 이해하기 어렵지만 텅 빈 마음속에 우주 삼라만상이 깃들듯이, 수만 아니 수억 개의 수미산이라도 겨자씨 안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겨자씨와 수미산이 들이면서, 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새겨 보면서 우리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깨달음의 세계에 한번 눈을 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귀종 선사와 많은 조사들이 깨우침을 얻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듯, 우리 주법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자후를 하는 큰 선지식들이 많다. 우리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식이 없다고만 한탄하는 것이 아닐까 반성해 보면서 부처님의 깊은 깨달음의 세계를 헤엄쳐온 많은 선지식들이 부러울 뿐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학박물관 관장)

詩가 있는 도량

어머니 품에서

알싸한 하얀달빛
눈처럼 갈리는 밤
달걀딱딱 떨어지는 뼈마디 삭는 소리
저릿한 어머니 품속
살금살금 파고든다

말갈게 좋아하는 육신
은 밤을 잠 못 들고
웅이 진 주름살만 손바닥에 북, 북 걸려
이리도
시린 바람이
이내 속 후벼 팠 줄은

이 밤 지새고 나면
얼마나 더 가벼워질까
평생 받은 온기를 돌려드릴 수 있다면
이 한 몸
달빛에 녹는 눈꽃되면 어떠랴

-이승현, 시집 <빛, 소리 그리고>



고판학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이발참문(李剃參問)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격(半格) 27.2 x 18.0cm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웨이셀타올
각 6,000원 → 5,400원 (10%DC)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남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저연소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량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구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됩니다.

■ 품질경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태양이 넘사야할, 스프라타일,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전신용 (90cm x 130cm)
- 제조원 - 초록실업원 (한국산)

위생·항균·항독 삼베 수세미

■ 삼베수세미
각 4,000원 → 3,600원 (10%DC)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남은 소박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저연소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량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 삼베사워타올
각 15,000원 → 13,500원 (10%DC)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질 - 헨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태양이 넘사야할, 스프라타일, 등산할 때, 한자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격 - 세안용 (80cm x 28cm), 전신용 (9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끝까지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용으로 건조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법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 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조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한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이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한다.
· 상처나 피부질환이 문지르지 않아야 한다.

현물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무료 + 추가할인)

■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물삼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